

보도해명자료 (‘19. 5. 2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국내산 태양광 모듈의 2019년 1분기 사용비율은 전년대비
증가(문화일보 5.2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)

- ◇ 국내산 태양광 모듈의 2019년 1분기 사용비율은 전년대비 증가
- ◇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계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할 예정
- ◇ 5월 2일 문화일보, <외국 업체만 배불리는 ‘신·재생에너지 올인’>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1. 보도 내용

-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사실상 ‘올인’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, 오히려 외국 업체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
- 국산 태양광 모듈 점유율은 2014년 82.9%에서 지난해 9월 66.6%로 하락한 반면, 중국산 점유율은 16.5%에서 33.4%로 상승
- 2014년 국내 풍력발전설비의 100%가 국산이었으나, 지난해 9월 기준으로 30%까지 하락

2.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

- 2018년 국내산 태양광 모듈 점유율은 72.5%이며, 2019년 1분기에도 전년대비 증가한 78.2%를 달성

* 국내산 태양광 모듈 설치비중(용량기준):

(‘16) 72.0% → (‘17) 73.5% → (‘18) 72.5% → (‘19.1분기) 78.2% (출처: 한국에너지공단)

- 아울러, 2019년 1분기까지 보급된 풍력설비(80MW, 터빈용량 기준)는 모두 국내산으로 설치된 것으로 파악

* 출처 : 한국에너지공단 RPS 설비등록 실적

- 아울러, 정부는 약 6개월간 관련업계,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‘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’을 수립·발표(4.4)한 바 있음

- 동 대책은 국내생태계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내수시장의 안정적 확대, 국내 태양광·풍력 제조기술 고도화, 지역기반 혁신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

- 정부는 국내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우리 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수출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, 업계와 상시 소통하면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임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이용필 과 장(044-203-5360)
이기현 사무관(044-203-5362)